

LDPE, 농업용 필름 시장 때문에...

수요기업 경영난으로 가격인상 시도 좌절 ... 8월 가격 95만원 그쳐

2003년 8월 농업용과 일반용 LDPE(Low-Density Polyethylene) 가격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003년 8월 일반용 LDPE 가격은 Film 그레이드 기준 톤당 94-95만원으로 7월 89만-90만원에 비해 5만원 인상됐다.

농업용 필름은 생산원가가 높아 보통 일반용보다 평균 5만원 높게 거래되지만 8월 농업용 LDPE 가격은 7월 가격에서 동결돼 일반용 필름과 같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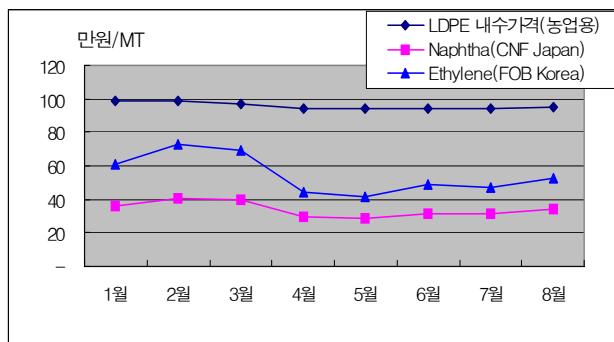
LDPE 생산기업에 따르면, 7월부터 LDPE 필름 시장이 호황기를 맞아 가격상승을 시도하고 있으나 수요기업들의 경영난으로 원가대비 가격인상에 실패했으며, 특히 농업용 필름 수요기업들의 수익률 악화로 7-8월 가격인상 시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용 필름은 2003년 농협과의 계통계약 과정에서 15%의 가격인하를 요구받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며, 일반용을 수요하는 기업도 최근 불경기로 인해 생산기업의 가격인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LDPE 생산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2002년 사우디 SABIC이 천연가스를 이용한 신공정 개발로 원가가 톤당 100-200달러 낮은 제품을 공급하면서 국내기업의 중국수출이 차질을 빚어 재고가 늘어났고 한때 내수가격과 수출가격이 같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2003년 들어 SABIC이 판매정책을 수정하면서 LDPE의 국제가격이 안정됐고 이에 따라 내수가격에도 영향을 주어 LDPE는 8월 현재 5대 합성수지 중 가장 합리적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LDPE 내수가격 추이



국내 LDPE 필름은 단위시장으로는 가장 큰 농업용 필름의 수익률 악화로 8월 초 공시가격이었던 100만원에서 5만원이 낮게 거래되고 있는데, LDPE 생산기업들은 7-8월에 반영되지 못한 인상분을 성수기의 막바지인 9월에 적용해 톤당 105만원까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LDPE 생산기업들은 10만원의 가격인상폭에 대해 배수진을 치고 있는 반면, 수요기업들은 생산기업들의 가격인상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2003년 8월 LDPE 수출가격은 CFR China 톤당 700달러로 7월에 비해 20달러 상승했고 내수가격은 일반용 7월 90만원, 8월 95만원이고 9월 고시가격은 100만원이다.

또 농업용 필름은 7월 95만원, 8월 95만원으로 8월에 반영되지 못한 인상폭을 9월에 적용해 현재 9월 공시가격은 105만원으로 8월에 비해 10만원 인상으로 고시했다. <김동민 조사연구원>

<Chemical Journal 2003/09/05>